

# 벤처기업의 창업자특성과 역량, 기업전략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상백\*, 양해솔\*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정보경영학과\*

## The Affects of Characteristics of CEO, Competence on Corporate Strateg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Venture Companies

Sang-Baek Lee\*, Hae-Sool Yang\*

Dept. of Inform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조직유효성으로 직무몰입, 조직몰입, 이직의도로 구성하고 선행요인으로 창업자 특성, 기업역량특성, 전략특성으로 설정하고 규명하기 위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총 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역량특성, 기업역량 등이 조직유효성 하위요소로 구성된 직무몰입,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략특성 역시 창업자 및 기업역량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어** : 창업자특성, 경영전략, 조직유효성

**Abstract** This research draws the factors of managerial performance that was verified by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after considering research type, factors of performance and research model.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below. Firstly, psychological traits, capabilities of CEO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st superior tactic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econdly, entrepreneurial capability of CEO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r and managerial capability of CEO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st superior tactic and technical capability of CEO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rdly, technical resourc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oduct innovation differentiation tactic,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finance resourc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rketing differentiation tactic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marketing capability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oduct differentiation tactic, marketing. Fourthly, product innovation-differentiation tactic, marketing differentiation tactic, and cost superior tactic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Key Words** : Characteristics of CEO, business strategy,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Received 30 September 2013, Revised 25 October 2013  
Accepted 20 Dec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Hae-Sool Yang(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Email: hsyang@hoseo.edu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세계 경제는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창업촉진 및 창업기업 육성을 중요 과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 및 지자체 등 유망한 아이디어와 지식이 있는 청년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시제품 제작, 멘토링, 창업공간 제공 등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통해서 우수한 벤처기업의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신설법인 수가 2010년 60,312개, 2011년 65,110, 2012년 74,162개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초기 창업을 통해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그 이후, 다양한 기술혁신과 투자, 판로개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지속적인 성장성이 확보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다. 벤처기업 역시 초기성장 및 지속적인 성장성을 유지하고 발전하여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다양한 선행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벤처기업 연구들에서는 조직유효성의 선행요인으로 창업자특성이나 역량특성, 전략적 특성 어느 하나만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창업자 특성연구 역시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이나 창업자 역량, 기업역량 등 부분적인 변수만을 사용한 연구가 되어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역량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전략적 특성요인 역시 단순 선행요인과 조직유효성간의 관계만을 분석한 연구들로 전략 특성요인이 창업자특성과 조직유효성간의 매개적인 역할로서의 실증분석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조직유효성의 독립변수로 창업자 특성(성취욕구, 위험감수성)과 역량특성(혁신성, 기업가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 기업역량(마케팅 역량, 자금조달 역량) 등 각 수준에서의 역량을 모두 포괄하고, 매개변수로 전략특성(품질우위, 비용우위), 그리고 창업자 특성과 조직유효성 관계에서 전략특성의 매개적 역할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벤처기업의 조직유효성 결정요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본 연구를 통해 실증 분석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 2.1 CEO의 심리 및 역량특성과 조직유효성

CEO의 심리특성인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과 관련한 연구들을 보면 창업자특성이 자존감의 향상 및 기업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1] 창업자의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등이 성공벤처기업의 특성 등이 연구되었다. 역량특성에서도 CEO의 기업가적 역량, 관리 역량, 기술 역량 등이 성장률, 수익성, 매출액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2]

또한 Baum(1991)의 연구에 의하면 CEO의 역량 특성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전략과 조직구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3]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CEO의 창업자특성은 조직유효성의 하위요소인 직무몰입,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CEO의 역량특성은 조직유효성의 하위요소인 직무몰입,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벤처기업의 기업역량과 조직유효성

벤처기업의 마케팅 역량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 역량은 기업의 자원 확보력 및 유동성 관리를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4] 또한 Covin & Slevin은 벤처기업은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시장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벤처캐피탈 자금은 벤처기업들에 있어 기본적인 유일한 외부적 자금의 원천이 된다고 하였다.[6] 이장우(1998)는 컴퓨터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외국상표에 의한 차별화 전략을 사용하는 전략군은 마케팅측면이 우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벤처기업의 기업역량은 조직유효성의 하위요소인 직무몰입,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전략특성의 매개효과

CEO의 특성 및 역량특성, 기업차원의 역량은 조직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증적인 연구들이 있으나 기업의 시장변화에 따른 전략적 선행의 정합성 정도에 따라 조직유효성의 영향정도가 다를 것이다. 즉, CEO의 특성 및 역량특성, 기업역량은 전략특성인 제품 및 비용우위전략과의 정합성에 따라 보다 더 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1) 전략특성으로 품질우위는 CEO의 특성, 역량특성, 기업역량과 조직유효성의 하위요소인 직무몰입,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2) 전략특성으로 비용우위는 CEO의 심리적 특성, 역량특성, 기업역량과 조직유효성의 하위요소인 직무몰입,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연구대상

CEO의 특성 및 역량특성, 기업차원의 역량은 조직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증적인 연구들이 있으나 기업의 시장변화에 따른 전략적 선행의 정합성 정도에 따라 조직유효성의 영향정도가 다를 것이다. 즉, CEO의 특성 및 역량특성, 기업역량은 전략특성인 제품 및 비용우위전략과의 정합성에 따라 보다 더 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1) 전략특성으로 품질우위는 CEO의 특성, 역량특성, 기업역량과 조직유효성의 하위요소인 직무몰입,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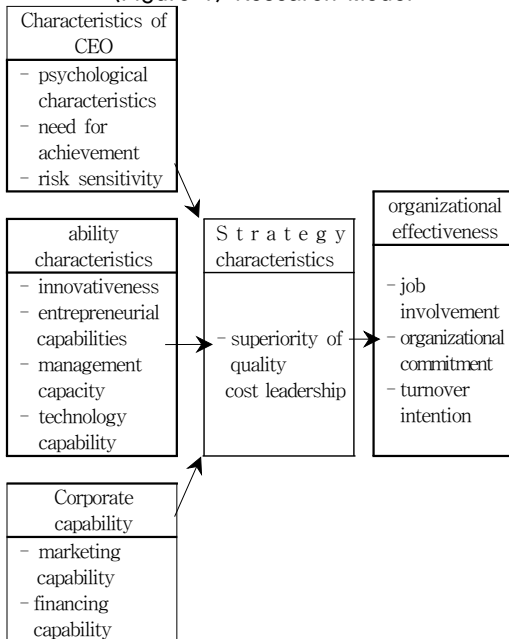
(가설4-2) 전략특성으로 비용우위는 CEO의 심리적 특성, 역량특성, 기업역량과 조직유효성의 하위요소인 직무몰입,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연구설계 및 방법

###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ure 1) Research Model



## 3. 연구설계 및 방법

###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 3.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대면 및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3.3 연구절차

연구는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응답 중에서 불충실하게 응답한 12명을 제외한 301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 3.4 측정도구의 작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 중 창업자의 심리특성으로 성취 욕구는 창업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의 의미하며 위험감수성은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을 선호하게

나 도전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Murphy (1996)과 Boone & Brabander(1997), 이장우(1997) 등의 연구[9], 역량특성으로 자금조달역량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전적 자원동원 능력이며 마케팅역량은 특정 자산 또는 능력을 개발하여 시장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는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의미한다. 기업가 역량은 환경을 탐색하고 기회를 선택하고 기회로부터 성과를 달성하는 역량이며 관리적 역량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며 기술적 역량은 전문적인 기술, 기법에 대한 능력을 의미한다. Chandler & Hanks(1994) 등의 연구[10], 기업역량은 Hitt & Ireland(1984)의 연구[11], 전략 특성으로 품질우위전략은 제품혁신을 중시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비용우위전략은 경쟁기어보다 낮은 원가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Lin(2001)과 Miller (1987) 등의 연구[12]에 따라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조직유효성의 하위요소로 직무몰입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의미하며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나 일체감을 말한다. 이직의도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 현재의 조직을 떠나고 싶은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총 질문사항은 65개 문항이며 측정도구는 다음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척도는 리커트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Table 1> Measuring instrument

Remarks	no. of question
need for achievement	5
risk sensitivity	5
innovativeness	5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5
management capacity	5
technology capability	5
marketing capability	5
financing capability	5
superiority of quality	5
cost leadership	5
job involvement	5
organizational commitment	5
turnover intention	5
total	65

## 2.5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PSS Win 19.0 K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연구결과 및 논의

### 4.1 신뢰성 분석

신뢰성 분석은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 측정도구는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이 0.677~0.928로 나타나 신뢰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of the concept

	Cronbach's α
need for achievement	.788
risk sensitivity	.677
innovativeness	.878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884
management capacity	.836
technology capability	.859
marketing capability	.846
financing capability	.852
superiority of quality	.833
cost leadership	.786
job involvement	.890
organizational commitment	.928
turnover intention	.918

### 4.2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은 개발된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CEO의 심리적 특성, 역량 특성과 기업역량, 전략특성, 조직유효성 설문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회전은 적재치가 높은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베리맥스(Varimax Rotation)방식에 의한 회전의 주 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요인 적재 값이 0.5이상인 항목을 선정하였다. 고유 값(Eigenvalue)이 1이상인 요인을 중심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 4.3 표본의 특성

표본 벤처기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기업 업력은 3년 미만이 8.0%, 3년 이상에서 7년 미만이 20.9% 7년 이상에서 10년미만이 15%, 10년 이상이 56.1%로 나타나 벤처기업 창업 후, 10년 이상 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업원 규모를 보면, 5명 미만이 13.3%, 6명에서 10명 미만이 14.0%, 11명에서 50명 미만이 40.5%, 50명 이상이 32.2% 등으로 나타나 종업원 규모에서는 11명에서 50명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업종은 전자분야 16.6%, 자동차분야 17.9%, IT 5.6%, 기타 59.8% 등으로 비 주요 업종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에서는 10억원 미만이 6.0%,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미만은 13.6%, 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은 23.6%,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미만은 18.6%, 100억원 이상은 38.2% 등으로 나타나 1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지역이 30.2%, 비수도권지역이 69.8% 등으로 비수도권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s

	questions	frequency	%
establishment period	3<	24	8.0
	3 - 7	63	20.9
	7 - 10	45	15.0
	<10	169	56.1
number of worker	5<	40	13.3
	6 - 10	42	14.0
	11 - 50	122	40.5
	<50	97	32.2
type of business	electronics industry	50	16.6
	automotive industry	54	17.9
	IT industry	17	5.6
	et	180	59.8
the total sales	10<	18	6.0
	10 - 20	41	13.6
	20 - 50	71	23.6
	50 - 100	56	18.6
	100<	115	38.2
location	metropolitan area	91	30.2
	non-metropolitan	210	69.8

### 4.3 가설검증 결과

#### 4.3.1 CEO의 심리 및 역량특성과 조직유효성 관계

<가설 1>의 CEO의 심리적 특성으로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과 조직유효성의 하위요소인 직무몰입, 조직몰입, 이직의도와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서 보면 먼저, 심리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몰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식의 설명력(R<sup>2</sup>)이 .145이고 그에 따른 통계량 F값은 26.336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위험감수성에 대해서는 .085로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취욕구는 .000의 유의수준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설명력(R<sup>2</sup>)이 .107이고 그에 따른 통계량 F값은 18.929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개별변수인 성취욕구 및 위험감수성 모두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설명력(R<sup>2</sup>)이 .053이고 그에 따른 통계량 F값은 9.353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위험감수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H1

N : 301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job involvement					
	B	SD error	t	Sig	R <sup>2</sup>	F(P)
(constants)	1.992	.252		.000		
need for achievement	.330	.058	3.03	.000	.145	26.336 (.000)
risk sensitivity	.114	.066	.102	.085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organizational commitment					
	B	SD error	t	Sig	R <sup>2</sup>	F(P)
(constants)	1.677	.320	5.235	.000		
need for achievement	.270	.074	3.642	.000	.107	18.929 (.000)
risk sensitivity	.248	.084	2.954	.003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turnover intention					
	B	SD error	t	Sig	R <sup>2</sup>	F(P)
(constants)	4.580	.388	11.81	.000	.053	9.353 (.000)
need for achievement	-.317	.090	-3.53	.000		
risk sensitivity	-.077	.101	-.758	.449		

<가설 2>의 CEO의 역량특성으로 혁신성, 기업가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과 조직유효성으로 직무몰입, 조직몰입, 이직의도와와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5>에서 보면 먼저, 역량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몰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식의 설명력(R<sup>2</sup>)이 .285이고 그에 따른 통계량 F값은 30.329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으로 타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개별변수에서는 기업가적 역량(.001)과 관리적 역량(.007)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혁신성과 기술적 역량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설명력(R<sup>2</sup>)이 .380이고 그에 따른 통계량 F값은 46.934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개별변수에서는 기업가적 역량(.000)과 관리적 역량(.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혁신성과 기술적 역량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설명력(R<sup>2</sup>)이 .125이고 그에 따른 통계량 F값은 11.731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개별변수에서는 기업가적 역량(.010)은 유의하였으나 혁신성,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Table 5>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H2

N : 301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job involvement					
	B	SD error	t	Sig	R <sup>2</sup>	F(P)
(constants)	1.385	.222	6.23	.000	.281	30.329 (.000)
innovativeness	.064	.061	1.05	.295		
entrepreneur capabilities	.269	.078	3.45	.001		
management capacity	.206	.075	2.73	.007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organizational commitment					
	B	SD error	t	Sig	R <sup>2</sup>	F(P)
technology capability	.058	.065	.890	.374	.380	46.934 (.000)
(constants)	.321	.256	1.254	.211		
innovativeness	.076	.070	1.087	.278		
entrepreneur capabilities	.340	.090	3.792	.000		
management capacity	.343	.087	3.954	.000		
technology capability	.101	.075	1.338	.182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turnover intention					
	B	SD error	t	Sig	R <sup>2</sup>	F(P)
(constants)	5.371	.358	15.01	.000	.125	11.731 (.000)
innovativeness	-.075	.098	-.769	.443		
entrepreneur capabilities	-.323	.125	-2.58	.010		
management capacity	-.136	.121	-1.11	.264		
technology capability	-.060	.105	-.567	.571		

#### 4.3.2 벤처기업의 기업역량과 조직유효성 관계

<가설 3>의 벤처기업 기업역량으로 마케팅 역량과 자금조달 역량과 조직유효성으로 직무몰입, 조직몰입, 이직의도와와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6>에서 보면 먼저, 기업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몰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식의 설명력(R<sup>2</sup>)이 .209이고 그에 따른 통계량 F값은 40.643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개별변수인 마케팅 역량(.000) 및 자금조달 역량(.001) 모두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설명력(R<sup>2</sup>)이 .135이고 그에 따른 통계량 F값은 24.375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개별변수인 마케팅 역량(.000) 및 자금조달 역량(.019) 모두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설명력(R<sup>2</sup>)이 .652이고 그에 따른 통계량 F값은 652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522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 채택되었다.

**<Table 6>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H3**

N : 301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job involvement					
	B	SD error	t	Sig	R <sup>2</sup>	F(P)
(constants)	2.090	.179	11.69	.000		
marketing capability	.281	.059	4.755	.000	.209	40.643 (.000)
financing capability	1.99	.057	3.499	.001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organizational commitment					
	B	SD error	t	Sig	R <sup>2</sup>	F(P)
(constants)	2.023	.232	8.717	.000		
marketing capability	.308	.077	4.003	.000	.135	24.375 (.000)
financing capability	.174	.074	2.351	.019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turnover intention					
	B	SD error	t	Sig	R <sup>2</sup>	F(P)
(constants)	3.115	.293	10.61	.000		.652 (.522)
marketing capability	-.098	.097	-1.01	.313	.652	
financing capability	.095	.093	1.017	.310		

**4.3.3 전략특성의 매개효과 관계**

<가설 4>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전략특성(품질우위, 비용우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①의 식과 ②의 식에서 모두 각각 β1, β2가 유의해야 하며 ③의 식에서 β4가 유의해야 한다.

- ①  $X_2 = \alpha_1 + \beta_1 X_1$
- ②  $Y = \alpha_2 + \beta_2 X_1$
- ③  $X_2 = \alpha_3 + \beta_3 X_1 + \beta_4 X_2$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Table 7>에서 보면 먼저, 독립변수(심리적 특성, 역량특성, 기업특성)와 종속변수(직무몰입, 조직몰입, 이직의도)간의 품질우위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종속변수 직무몰입에서는 β1, β2, β4의 값이 각각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β3 값도 β2의 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고 매개효과 조건을 모두 만족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량특성은 매개효과보다는 직접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를 조직몰입으로 한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검증한 결과 심리적 특성과 기업특성이 각각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역량특성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한 검증에서는 심리적 특성만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1>은 부분 채택되었다.

**<Table 7>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H4-1**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job involvement				mediator effect
	β1	β2	β3	β4	
psychological traits	.597***	.463***	.267***	.328***	0
capability traits	.742***	.600***	.514***	.115	X
enterprise ability	.385***	.478***	.364***	.297***	0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organizational commitment				mediator effect
	β1	β2	β3	β4	
psychological traits	.597***	.452***	.160***	.345***	0
capability traits	.742***	.861***	.844***	.023	X
enterprise ability	.385***	.478***	.310***	.437***	0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turnover intention				mediator effect
	β1	β2	β3	β4	
psychological traits	.597***	-.415***	-.212	-.340**	0
capability traits	.742***	-.599***	.403***	.162*	X
enterprise ability	.385***	.002*	-.529***	-.093	X

<Table 8>에서 전략특성으로 비용우위의 독립변수(심리적 특성, 역량특성, 기업특성)와 종속변수(직무몰입, 조직몰입, 이직의도)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를 보면,

직무몰입과의 관계에서 비용우위의 매개효과가 가장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는 심리적 특성과 기업역량이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역량특성은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직의도와와의 관계에서는 기업역량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2>은 부분 채택되었다.

(Table 8)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H4-2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job involvement				mediator effect
	$\beta_1$	$\beta_2$	$\beta_3$	$\beta_4$	
psychological traits	.542***	.463***	.186**	.511***	0
capability traits	.719***	.600***	.319***	.390***	0
enterprise ability	.520***	.478***	.242***	.454***	0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organizational commitment				mediator effect
	$\beta_1$	$\beta_2$	$\beta_3$	$\beta_4$	
psychological traits	.542***	.452***	.237**	.522***	0
capability traits	.719***	.861***	.741***	.168*	X
enterprise ability	.520***	.478***	.220**	.496***	0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turnover intention				mediator effect
	$\beta_1$	$\beta_2$	$\beta_3$	$\beta_4$	
psychological traits	.542***	-.415***	-.341**	-.136	X
capability traits	.719***	-.599***	-.717***	.164	X
enterprise ability	.520***	.002*	.193	-.386***	0

###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벤처기업의 조직유효성의 선행요인을 CEO의 심리특성, 역량특성, 기업역량 등 보다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그 요인을 규명하고 양 관계에서 전략적 특성인 품질 및 비용우위의 전략적 특성에 따라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즉, 다차원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해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벤처기업 육성과 경영활동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벤처기업 3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응답자는 기업의 임원급이상으로서 벤처기업 수준에서의 응답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특성으로 업력 10년 이상이 56.1%로 가장 많았으며, 종업원 수는 11명에서 50명 미만이 전체의

40.5%로 가장 많았고, 주요 업종분야로는 기타업종이 59.38%, 총매출액에서는 100억원 이상이 38.2%, 지역적으로는 비수도권이 6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업력 10년 이상, 종업원 수 50명 미만, 업종으로는 기타업종, 매출액은 100억원 이상,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가설검증 결과를 보면, CEO의 심리적 특성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가 회귀식 모형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 변수에서 위험감수성의 경우 직무몰입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기업의 상당수가 업력 10년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벤처기업 초기에 나타나는 적극적인 위험감수성향보다는 안정적인 고객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전략적인 선택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역량특성과 조직유효성 관계에서는 직무몰입과 조직몰입에는 기업가적 역량과 관리적 역량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에서는 기업가적 역량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EO의 기업가적 역량이 조직유효성에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영향 변수임을 의미하고 그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기업역량과 조직유효성의 관계에서는 기업의 마케팅 역량과 자금조달능력이 직무몰입과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직의도에는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략특성의 구성요소인 품질우위와 비용우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먼저, 품질우위의 경우 직무몰입과 조직몰입 모두 심리적 특성, 기업역량간의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이직의도와와의 관계에서는 심리적 특성이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조직성과 향상에 있어서 CEO의 역량 즉, 개인적인 심리적 특성 및 역량특성, 기업역량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경영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예비창업자의 육성이나 초기창업기업의 지원제도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술만 있으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자칫 CEO의 경영능력이나 자원동력 능력 등의 중요한 창업 이후의 준비와 교육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반대로,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에 보다 중장기적인 창업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창업 준비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단기교육중심에 이론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창업이후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원제도 역시 창업자의 경영마인드가 제고 되지 않는다면 지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학과 창업지원기관은 보다 중장기적인 창업교육체계 및 현장중심의 커리큘럼 도입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역량개발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벤처기업의 마케팅 및 자금조달 역량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창업의 성장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판로개척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금조달 및 유동성확보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벤처기업 중, 창업이후, 시제품개발 또는 시장 진입이후,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기업역량 부분인 마케팅 능력과 자금조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창업이후 나타나는 죽음의 계곡과 동일한 연장선에서 실증되는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유망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판로개척 및 자금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의 전략적 사고 필요성이다. 연구결과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창업자 및 기업역량이 있더라도 전략적 사고 및 의사결정 능력은 조직의 성과를 보다 확장 또는 감소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나 창업초기 기업, 초기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기업 등 모든 단계의 벤처기업들은 각 단계별로 전략적 선택, 즉,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략수립, 이를 제품과 기업내부화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경영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의 경쟁력과 고도의 경영능력을 요구하는 경영환경에서 예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또는 기술,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있는 특허 또는 기술력을 모두 직접 창업을 통해 구현하는 방법 이외에 현재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허지원, 기술거래, 기업합병 등 다양한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하여 구지 복잡한 벤처기업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수요가 있는 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이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회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REFERENCES

- [1] Young Bae Park · Chang Seok Yoon,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Management Performance to Venture Business, KSI (Hanguk Haksul Chungbo) 2001, Vol.4(1), pp.3-34.
- [2] Choi, Y. K. and S. W. Chung, "The role of an entrepreneur's human/social capital in opportunity exploitation and venture capital investment"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2010.
- [3] Baum, J. R, The Relation dor Traits, Competencies, Vision, Motivation, and Strategy to Venture Growth", Doctoral Dissertation Maryland University. 1994.
- [4] Hitt, M. A. and R. D. Ireland(1984), Corporate Distinctive Competence and Performance: Effects of Perceived Environmental Uncertainty, Size and Technology, Decision Sciences, Vol. 15, NO. 3, pp.324-326.
- [5] Covin J. G., and D. P. Slevin,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5. pp.123-135.1991.
- [6] Buddelmeyer, H., P. H. Jensen, and E. Webster, "Innovation and the Determinants of Company Survival" *Oxford Economic Paper*, 2010.
- [7] Shepherd, D. A. and E. J. Douglas, "New Venture Survival : Ignorance external Shocks, and Risk Reduction Strateg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00.
- [8] Carroll, G. and M. T. Hannan, Organizations in Industry : Strategy, Structure, and Sele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5.
- [9] Murphy, G. B., J. W. Trailer, and R. C. Hill, "Measuring Performance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996.
- [10] Chandler G. N. & H. Hanks, "Market Attractiveness, Resource-based Capabilities, Venture Strategies,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994.
- [11] Hitt, M. A., Keats, B. W. & DeMarie, S. M.,

“Navigating in the new competitive landscape : Building strategic flexibility and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21st century”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998.

[12] Miller, D. and Toulouse, J. M., “Strategy, structure, CEO personality and performance in small firm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986.

**이 상 백(Sang-Baek, Lee)**



- 1983년 2월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1992년 8월 :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경영지도학과 졸업(석사)
- 2013년 9월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재학
- 1985년 6월 ~ 현재 : 기업은행 근무
- 1992년 10월 ~ 현재 : 경영지도사(인사관리)
- 2000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금융보험학부 시간강사
- 2013년 2월 ~ 현재 : (사)충남지역혁신사업단 회장
- 2013년 3월 ~ 현재 : (북)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2013년 9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초빙교수
- 관심분야 : 경영지도, 제테크컨설팅, 창업컨설팅, 경영관리.
- E-Mail : cric@hanmail.net

**양 해 술(Hae-Sool Yang)**



- 1975년 2월 : 홍익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학사)
- 1978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정보처리학과 졸업(석사)
- 1991년 3월 : 日本 오사카대학 정보공학과 SW공학 전공(공학박사)
- 2006년 2월 : Kazakhstan 유러시안 경제대학(명예경영학박사)
- 1975년 5월 ~ 1979년 6월 : 육군중앙경리단 전자계산실 시스템분석장교
- 1980년 3월 ~ 1995년 5월 : 강원대학교 전자계산학과 교수
- 1986년 12월 ~ 1987년 12월 : 日本 오사카대학 객원연구원
- 1995년 6월 ~ 2002년 12월 : 한국소프트웨어품질연구소 소장
- 2010년 3월 ~ 2012년 2월 : 호서대학교 창업대학원 원장
- 2012년 11월 : 대통령표창(SW산업발전유공) 수상
- 1999년 11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SW공학(특히, SW품질보증과 품질평가, 품질 관리 및 컨설팅, SI), SW프로젝트관리, 품질경영.
- E-Mail : hsyang@hoseo.edu